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Parent Caregiving Familie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洪淑子

Dept. of Home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Lecturer : Sook Ja, Hong

본 연구는 노부모부양가족의 어려움과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를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가족의 요구가 고려된 실험적 노부모 부양가족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구상된 프로그램으로 노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여덟명의 교육대상을 소규모 집단으로 모집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시과정에서 파악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사전 검사후 사후 검사를 2회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의 참여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된 부양에 필요한 지식정보와 자기결단 및 통제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양자로 하여금 보다 긍정적인 노부모 부양태도나 인식을 가지게 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해 주었다.

I. 서 론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우리의 생애중 노년기의 기간이 점차 크게 연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 부양문제는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노부모 부양을 가족의 의무행으로 여겨왔으나 최근 경제발전과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취업, 부양자녀수의 감소 및 사회적 가치체계나 행동규범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에 핵가족의 확산 등 서구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모 부양의식과 행동이 전보다 현저하게 약화된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빠른 현대화의 과정속에 처한 우리의 이러한 생활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외에는 부모부양에 대한 제이, 제삼의 부양정책이 따로없는 실정에서 우리 사회에 가족부양이 계속해서 주도적인 부양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김영모, 1990), 가족의 노인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로인한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갈등과 심리적 부담감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가족을 떠난 공적제도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떠나갔던 구미 여러나라들에서는 소외와 고립의 문제, 비인간화의 문제 등 노인에 대한 공적인 사회부양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홍

숙자, 1992). 이러한 서구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노인부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에 부양의 뿌리를 두게 하되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지라도 우리 고유의 경로효친 사상에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질적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과 혜택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리라 본다. 서구가 겪는 노인부양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할 때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은 서구나 한국 등 사회문화적 배경을 불문하고 계속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을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의 부양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며 노부모는 보다 나은 부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실제적인 도움의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친부모 및 시부모 부양을 담당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이나 스트레스,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연구(민무숙, 1994; 이신숙, 1994; 송현애, 1994)가 최근 활발하고, 노부모 부양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파악되고 있다(옥선화 외, 1994). 그러나 노인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노인부양가족 교육은 젊은 세대에게 가족관계의 변화나 노화과정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노인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이른바 노인을 아는 지식획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노인기 이해와 노인을 아는 것은 부양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여 부양상황의 어려움에 보다 능력있게 대처하게 하고 긍정적인 부양태도나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한다. 이로써 부양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세대간 관계증진과 함께 가족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가족의 어려움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노인부양체계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 노인부양 가족이 겪는 문제점과 요구가 고려된 실험적 노부모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둘째, 구상된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을 모집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과정에서 파악되는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 평가하여 노부모 부양 가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I. 노인부양

노인부양은 부양의 주체에 따라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뉘어지는데 전자는 선진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나 국가가 개입한 사회보장이나 복지차원의 부양이며 후자는 한국사회에서의 노인부양과 같은 개인적 가족적 차원의 부양을 의미한다. 현재 서구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공적연금인 노령연금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조해 주는 공적부양 또는 공적부조로써 그들의 생계비를 조달받고 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도 공적 지원제가 확고하다. 비인간화 및 경제적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는 시설노인이 그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가족의 따뜻한 간호를 받게하려는 움직임 속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 보호기능 강화 등 노인을 위한 복지재정의 지원이 거의 공적 부문에서 충당되고 있다(홍숙자, 1992).

한편, 가족이 노인 부양의 주체가 되는 사적부양 즉 가족부양에는 자녀와 가구를 달리하거나 혹은 시설에 수용되어 자녀로부터 단지 정서적·경제적 지원만을 받는 경우와, 자녀와 동일가구를 이루어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신체적 몸시중까지 받고 사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주로 서구나 미국에서 보편적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점차 자녀들과 별거하여 독립해 사는 노인단독세대가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들과 동거하여 부양을 받고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김종갑, 1985). 의식구조나 기대의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부양제가 대다수인에게 당연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성규탁, 1990; 김태현 외, 1991), 실제적인 상호의존 및 부양혜택 면에서도 연구들(민무숙, 1994; 전길량, 1993)은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그들의 노후를 가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효'를 인류의 기본으로 삼는 가족관계 및 사회문화적인 여건 속에 처해 있어서 가족부양이 계속 주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의 원조없이 개개 가족이 부모의 노년을 책임지는 현 실정에서 실상 자녀세대의 부양 능력이 떨어지고 노인세대의 자활능력마저 없고 보니 가족의 노인부양이 현실적으로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나 당위성, 또한 실제의 부양의존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자녀수의 감소 등의 여건들이 가세되어 우리 사회 부양가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노인부양의 공적 지원체제가 기반이 잡힌 외국의 경우에도 노인부양은 가족들에게 심리적 갈등이나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으며(Brody, 1985; Zarit, et al., 1986), 부양의 과중한 부담감은 가족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Motenko, 1989)을 볼 때 노인부양은 비단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신체적·심리적인 부담으로서 갈등이 유발되고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위로 부모세대와 아래로 자녀세대의 중간세대로서 노부모 부양책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40대 혹은 50대의 중년기 성인자녀는 과중한 업무, 자신의 노화 및 중복되는 역할 등으로 건강과 재정, 심리적 압박감이 증폭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노인부양체제와 우리나라 노인부양 문제의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족밖 사회나 국가의 공적 지원체제의 적극적 개입 등 여러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측면에서 부양가족의 능력을 강하게 하여, 현재 행해지는 가족 부양의 부담이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즉 일단 파악된 문제점이나 요구에 근거하여 교육으로써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항들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게 함으로써 발생가능한 가족부양 문제의 예방 및 부양상황의 어려움에 대처할 능력을 가지게 하는데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노부모 부양문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쌍방간의 문제로서 부모세대나 자녀세대 모두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세대의 노인 배우자 부양의

경우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만을 교육대상으로 하였다.

III.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본 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와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목표, 다루어야 할 프로그램 내용, 실시 방법, 평가방안 및 실험적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노부모 부양의 문제점과 교육요구

노인부양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현황과 노인부양의 문제점 및 교육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총 374명의 자료를 분석한 바 있는 옥선화 외(1994)는 부양자의 어려움으로서 노부모의 성격문제, 건강, 부양의 심리적 부담감을 들고 있다. 노인부양가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체의 84%로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단순한 지식 정보의 획득이라기 보다는 부양에 관련된 가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노인부양에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노화와 노인질환, 자신의 노후계획, 노인의 성격 특성, 가족대화와 갈등해결, 노인과의 원만한 관계, 건강관리와 여가, 심리적 부담감소, 역할분담 등의 영역이며, 전반적으로 부양지식과 정보에 대한 인식수준 보다는 필요성 수준이 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인 관련법이나 복지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그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심층분석에서 노부모와의 친밀감이나 정서적 관계의 강화가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을 담당하는 이들은 주로 중년세대이므로 노부모뿐 아니라 부양자 자신들을 위해서도 노화과정에 대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힘에 겨운 부양과업에 대해서는 동거나 별거의 상황을 떠나서 노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녀들간에 공유된 책임이 될 수 있도록 부양역할 분담의 논의와 방법제시가 교육에 포함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실시 방법으로는 강의와 토론형태를 주로 원하였고(46.9%), 실시시간은 여성 부양자는

주중 낮시간을, 부부부양자나 남성 부양자는 주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숙(1994)은 부양의 실제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부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기혼여성 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인과의 애정적 유대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부양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양 세대간의 친밀감이나 주관적 유대를 발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에 대한 부양 스트레스 인지를 살펴 본 송현애(1994)는 경제적 취약이나 과도한 서비스적 행동을 의미하는 '스트레스원(源)'과, 부양자 자신의 통제능력이나 부양태도, 양세대의 호혜성, 관계의 질 및 가족사회적 자원 등으로 설명되는 '부양자원'과를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부양 스트레스원(源)의 측면에서 스트레스 유발원인으로 시부모의 경제상태, 시부모 건강 및 부양자 자신의 서비스적·경제적 부양행동 등이 나타났고 이 중 시부모의 경제상태나 건강 보다는 며느리가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부양행동의 정도가 더 큰 부양부담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부양자원의 측면에서는 부양자의 부정적 부양태도, 낮은 자기 통제력, 상호원조의 호혜성에 대한 불만, 저조한 친밀감, 배우자나 주위 형제 친척의 도움부족 등이 부양 스트레스 유발원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스스로 통제 조절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고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단순히 양양시키기 보다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부모부양 태도를 가질 수 있게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부모 부양에 임해 질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부양 스트레스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심리·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노인문제 관련 연구의 제안에서 젊은 자녀세대에게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을 이해시킴으로써 가족관계가 향상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노인 부양을 담당

하고 있는 가족이 노인부양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반면, 실제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은 노인 부양자들의 요구도가 크고, 부양부담관련 연구 학자들이 필요성을 주장하여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로서 노화와 생리적 변화, 노인질병과 영양, 정신건강, 노인심리 및 성격 특성, 노인 복지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부양역할분담, 관계의 이해, 가족 유대감과 친밀감 향상 등의 내용들로 정리할 수가 있다.

2. 프로그램 목표설정

본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부양자가 노화이해 및 노인심리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부양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관계나 가족유대감에 대한 이해로써 자기통제력 및 결단의지를 키우게 될 때, 자신의 부양태도를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일단 부양태도나 인식이 긍정적인 것이 되면, 이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쳐 점차 세대간의 질적 관계가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노화와 생리적인 변화를 이해시켜 노인뿐 아니라 부양자 자신의 老化에도 적응할 수 있게 한다.
- 2) 노인의 질병과 영양을 알게하고 바른 생활습관 및 식습관을 가지게 한다.
- 3)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을 통해 기질성 및 기능성 정신장애의 상황에 따른 대처책을 알게 한다.
- 4) 중년기의 성격특성이나 발달과업 및 특수 상황을 이해시켜 자신의 발달과정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 5) 노인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요구를 이해시킨다.
- 6)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알고 복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7) 부양자 자신 혹은 노부모를 위하여 경제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게 한다.
- 8) 자신의 가족에게 적합한 노부모 부양의 역할 분담 방안을 강구하게 한다.

9) 관계를 이해하고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 적용하게 한다.

10) 긍정적인 생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한다.

11) 건강하고 유대감있는 가족의 자질들을 이해시키고 그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케 한다.

3. 노부모 부양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일차적으로 요구조사 분석결과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요구에 근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에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노년기 발달 강의에서 다루는 노년기 특징이해와 가족관계 및 가족 결속력을 위한 내용을 참조 검토하여 교육으로써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항들을 프로

그램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교육효과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위의 다양한 요구들 중 보다 심각한 문제들에 역점을 두어 증점적으로 그 필요사항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국부적이지만 대신 보다 심도있는 내용선정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요구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부양자의 부양지식과 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필요성 수준이 전영역에 걸쳐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하여, 일단 본 교육내용에서는 요구조사 결과에 언급된 내용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노인을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크게 4개 영역의 범주로 나누어 가능한 고르게 포함시켰다. 4개의 영역은 생물학적 노화과정, 심리적 변화,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용 및 노후대책, 그리고 관계의 이해와 가족유대감(친밀감) 향상의 영역들이

표 1.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영역	교육 내용	주요 학습 내용
1) 생물학적 노화과정	노화와 생리적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화와 외견상, 순환기, 소화기 계통의 변화 노인의 성생활, 노인의 수면
	노인질병과 영양 및 생활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당뇨병 골다공증 및 요통과 관절통 등 영양과 노인식단 및 식습관
	노인의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망, 기질성 및 기능성 정신장애 치매노인 가족의 사례소개 및 상호지지와 정보교환
2) 노화와 심리적 변화	감각 및 지각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화와 감각, 학습과 기억 및 지능
	중 노년기 성격특성 및 심리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년기 성격특성, 중년의 위기, 빈둥우리시기 및 갱년기 자신의 중년기 경험 나눔과 상호지지 및 격려 노인의 일반적인 속성 및 심리적 욕구
3) 노인복지 프로그램 노후대책	노인복지 관련법과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법과 실시 프로그램 국민연금, 공적부조책, 노인복지서비스
	노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노후와 경제적 노후계획
	가족부양책과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先가정 後국가' 정책 부양역할분담 토의 자기가족의 역할분담 사례소개 및 집단내 상호지지
4) 관계이해와 가족유대감 향상	관계의 이해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의 이해, 자신과 상대방의 성향파악 관계의 주도권, 인생각본(자기성취예언)
	건강하고 유대감있는 가족의 자질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과 시인(Appreciation) 장점 집중포격기법 소개(SBT) 가족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법 집단내 상호지지와 격려

다.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4. 실시방법

1) 대상과 집단규모

노부모와 별거하기 보다는 동거하는 이들의 부양 부담감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이신숙, 1994; 송현애, 1994),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별거하는 자녀들에게도 노인부양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므로 노부모와 동거 혹은 별거와 관계없이 양가 부모 중 한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는 성인자녀는 누구나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부양의 주 담당자가 주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부모 이헤나 부양 상황에 대처하는 부부협력이나 부양역할의 공유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부양자 부부를 교육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교육집단 규모는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식 정보의 제공과 계몽을 강조하여 대규모 강의식 형태도 바람직하다. 만일 참여자들 간의 보다 원활한 상호작용에서 경험의 나눔이나 상호지지와 격려를 기대한다면 소규모 혹은 중간규모의 집단이 적합하다.

본 실험적 프로그램에서는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의 첫 시도인 만큼 대규모 교육참가자 모집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일단 실험적인 단계로서 소규모 혹은 중간규모 이하의 집단을 선정하였다.

2) 교육형태 및 실시시간과 기간

교육은 요구도 조사에서 다수가 원했던 강의와 토론의 형태로 진행하고 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의 나눔, 부양부담을 공히 가진 집단으로서의 체험이나 사례 소개, 그룹대화와 토의 등으로 연결되게 한다.

실시시간은 여성부양자를 위해서는 평일 낮시간이나 저녁시간, 남성부양자의 경우 주말 오후나 저녁시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 1회 모임이 일반적인 예이나 대상자가 시간이 가능한 전업주부인 여성 부양자들 만인 경우 평일 연속적인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소요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30분내외의 융통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실시시간은 교육내용과 1회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총 5~6회의 모임으로 하고 교회 등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특색에 따라 실시 횟수를 늘릴 수가 있다.

본 실험적 프로그램의 실시에서는 참가 신청자가

여성부양자들만의 경우를 고려하여 주 1회 평일 낮 시간이나 평일 연속적인 모임을 선택하였다.

5. 평가방안

프로그램의 평가는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게 하고 프로그램 목표를 모두 포괄하는 평가 디자인이어야 한다(김혜석, 1990).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교육전과 교육후에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거나 특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중의 집단토의 결과나 교육대상자의 자기 보고식 평가, 그리고 교육종료시 프로그램 내용과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본 실험적 프로그램의 실시에서는 교육 종료일과 교육종료 3~4개월후 2차에 걸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진단해보고 아울러 교육중의 토의나 상호지지, 자기보고식 평가 및 전반적인 소감이나 건의사항들을 평가방안으로 활용하였다.

6. 실험적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프로그램

이상에서 구상한 실험적 교육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IV.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1. 프로그램의 실시

본 프로그램의 시범 교육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수정 보완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노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는 성인자녀 8명이었으며 1994년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종교기관에서 매회 2시간 30분씩 5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30~35세가 3명, 36~40세가 3명, 40세 이상이 2명이고 평균연령은 38세(표준편차 5.6)이다. 평균학력은 약 14년이고 노인의 며느리가 13%, 딸이 25%, 며느리이며서 딸인 경우가 63%로서 대상자가 모두 여성 부양자들이다.

표 2.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

	목 표	강의 및 활동내용	비 고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간의 유대 • 노화와 생리적 변화 이해와 적응 • 노인질병 이해 • 노인과 영양 및 식습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와 참석동기발표 • 질문지 응답작성 • 노화와 생리적 변화에 대한 강의 • 자신의 노화에 관한 질문 • 질문에 답하고 노화사실 수용과 적응에 대해 토의 • 토의된 내용 정리 <휴식시간> • 노인의 질병 및 영양, 식습관 강의 • 노인의 질병 및 식생활에 관한 질문 • 질문에 답하고 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대해 토의 • 토의된 내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지(지식정보, 노화사실 인지, 부양태도 및 자기통제력 검사) • 교재배부 • 메모지 필기구 • 이름표와 간식매회 준비 <p><과제> 자기가정의 식단 개선점을 검토 기록 해오기</p>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정신건강 과 대처책 이해 • 중년기의 이해와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기질성 및 기능성 정신장애 강의 • 노인치매,우울증 등에 관한 질문 및 경험담이나 사례소개 • 집단내 상호지지 격려 및 정보교환 <휴식시간> • 중년기 성격 특성,갱년기,빈둥우리 및 중년의 위기상황 강의 • 자신의 갱년기 경험이나 중년의 위기감에 대해 소그룹 토의나 발표 • 상호지지 격려 및 대처책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노인가족 모임에 대한 정보 배부 • 메모지, 필기구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특성과 심리적 욕구 이해 • 노인복지프로그램 및 서비스 활용 • 경제적인 노후계 • 노부모 부양의 역할 분담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성격과 심리적 욕구 강의 • 일반적인 노인심리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겪었던 생활경험이나 에피소드 소개 발표 • 노인심리에 반응하는 생활의 지혜나눔과 그에 대한 지지 격려 <휴식시간> • 노인복지관련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강의 • 경제적인 노후계획의 필요성과 노인취업 및 금융기관의 실버상품 소개 강의 • 복지프로그램 및 경제적 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 및 정보교환 • 질문에 답하고 교환된 정보정리 • 부양역할 분담의 필요성 강의 • 자신의 가족에게 적합한 역할분담 방안 구상 발표 • 발표된 내용정리에 대한 지지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및 보험의 노인고객을 위한 상품 정보 배부 • 메모지, 필기구 <p><과제> 구상된 역할 분담안을 가족과 토의 실천해보기</p>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의 이해와 적용 • 긍정적 생의 철학과 가치관 수립 및 자기통제력 강화 • 건강하고 유대감 있는 가족의 자질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의 이해, 관계의 주도권행사, 자신과 상대방의 성향파악에 관한 강의 • 긍정적인 인생각본(Life Script)강의 • 자신의 주도권 행사나 인생각본을 검토 • 분석하고 개선점에 대해 서로 나눔과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시간> • 건강하고 유대감있는 가족의 자질 강의 	<p>메모지, 필기구</p> <p><과제> 자신의 가족에게 걸여된 자질들을 점검하고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해오기</p>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유대감 있는 가족의 자질 중 인정과 시인, 격려의 기술 습득 • 바람직한 의사소통법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 •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집중 포격기법(Strength Bombardment Technique)강의 •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의 장점과 자랑거리를 모두 기록해 보고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느낀점 발표 • 바람직한 의사소통법 강의 • 적극적 의사소통·경청법을 자신의 노부모와의 관계에 적용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시간> • 적용시킨 사항에 대한 나눔과 지지 격려 • 지지집단 결성을 토의 유도 • 질문지 응답작성 • 평가지를 통한 프로그램 내용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평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의 장점목록 작성을 위한 메모 지준비(그의 갈등 상황에 있는 가족원의 장점목록작성도 가함) • 사후검사 질문지와 평가지 배부

2. 프로그램의 평가분석

부양에 필요한 지식정보 수준, 자기통제력 수준 및 부양태도 변화의 측면에서 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평가도구

(1) 지식 및 정보수준 척도

부양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수준 척도는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그 하나는 옥선화 외(1994)의 요구도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10문항들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8개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했으며 이는 1점(전혀 모른다)부터 5점(매우 잘안다)까지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또 다른 하나는 노화사실인지(Facts on Aging Quiz) 척도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FAQ(Palmore, 1977)와 FAQ 개정판(Miller & Dodder, 1980)에서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들과 표현이 애매한 문항들을 제외시켜 윤진 외(1982)의 '경산노화사실인지' 척도에 사용한 14문항들이다. 경산노화사실인지 척

도는 FAQ 외에 가족사회적 문항들이 1981년 아산 사회복지 사업재단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서 좀더 최근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수정 보완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들 중 신체생리적 문항(5문항)과 심리적 문항(6문항)은 노인과 노화과정에 관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며, 일부 가족사회적 문항(3문항)은 한국실정과 사실상 부합되거나 일단 문화의 경계선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척도로 선택하였다. 응답은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로 구분하고 이로써 노화사실에 대한 정답율을 파악한다.

(2) 자기결단 및 자기통제력 수준 척도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건의 결과가 자신의 행동이나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간주하여 그 결과를 자기에게 귀인시키는 경향이 강하며(송현애, 1994), 이로써 문제해결 방안모색에 긍정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송현애(1994)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는 4개의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형으로서 각 1~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나타내며 척도의 신뢰도는 $\alpha=.62$ 이다.

(3)인식 및 태도 척도

부양인식 및 태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송현애(1994)의 부모부양태도 척도이다. 이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결과 1은 결혼후 관계 유지에 대한 태도, 2는 노부모 부양책임소재에 대한 태도, 3은 직계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태도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에 이르는 5점 리커트 형으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인 부모부양태도를 나타내고,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0$ 이다.

2) 프로그램의 효과

본 프로그램의 참여가, 노부모 부양에 필요한 지식정보 수준과 부양자 자신의 자기결단 및 자기통제력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양자의 태도나 인식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고자 3회에 걸쳐 사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강의전 사전검사와 강의 종료일에 사후검사(I)을 실시하였고 강의종료 4개월 후에 다시 사후검사(II)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집단의 지식정보 수준, 노화사실인지, 자기통제력 및 부양인식태도 수준을 교육실시전과 후의 평균점수간 차이로 t검증해

본 결과 강의종료일의 1차 사후검사시에는 $p<.001$ 수준에서, 강의종료 4달후의 2차 사후검사 실시 시에는 $P<.05$ 수준에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검사(I)에서는 노화사실인지는 신체생리적, 심리적, 가족사회적 측면의 전 영역에서 교육전과 후의 점수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반면, 부양 인식태도는 부양책임소재 영역에서만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노부모와의 관계유지와 직계가족부양에서는 교육 전후의 점수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와의 관계유지 영역의 문항내용이 ‘노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까이 살아야 한다’, ‘3세대 동거가 보다 바람직하다’ 등의 동거 혹은 별거에 관한 것으로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부양자의 부양 부담감이 별거하는 이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연구결과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인부양을 가정밖 국가나 사회의 보호에 일임하기 보다는 성인자녀의 가족부양에 그 뿌리를 두게 함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부양책임소재 영역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가족이 경제적 혹은 서비스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상황하에서는 예컨대 직계가족부양 영역의 문항들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하며 아무리 좋은 양로원이라도 들어가는는 안된다’의 경우에서는 교육 전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 사회 가족부양의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표현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 사후검사(II)에서는 사후검사(I)과는 달리

표 3. 교육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비교

		M(SD)				
척도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I)	t	사후검사(II)	t
지식정보수준	지식정보정도	19.8(5.2)	33.4(6.3)	-6.2***	29.9(7.7)	-3.0*
노화사실 인지수준	신체생리적면	4.3(.7)	4.8(.5)	-2.7*	4.4(.7)	-.3
	심리적면	2.1(1.0)	4.0(1.2)	-4.7**	4.5(.8)	-6.3***
	가족사회적면	1.5(.8)	2.9(.4)	-7.5***	2.9(.4)	-4.3**
부양인식태도	전체	7.9(1.4)	11.6(1.5)	-10.3***	11.7(1.3)	-5.4***
	관계유지	12.1(3.2)	13.5(3.3)	-1.5	14.1(3.2)	-1.7
	부양책임소재	11.3(3.0)	15.8(2.5)	-6.2***	15.3(2.9)	-2.5*
	직계가족부양	11.4(1.1)	11.6(2.0)	-.34	11.9(1.8)	-.8
자기통제력	전체	34.8(5.0)	40.9(5.5)	-6.4***	41.3(5.7)	-3.7**
	자기통제력	12.9(4.0)	14.5(4.1)	-6.2***	13.7(1.3)	-2.5*

* $P<.05$ ** $P<.01$ *** $P<.001$

신체 생리적 노화사실 인지의 점수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적 노화사실인지 수준은 여전히 $p < .001$ 수준에서 교육 전후의 점수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식 정보수준이나 부양인식태도 및 자기통제력 역시 그 유의수준은 사후검사(I)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동일한 양상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하위영역별로는 점수간 차이가 없는 영역도 있지만 전체적인 노인부양태도나 인식 변화에는 교육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긍정적인 노인부양태도의 향상을 위해 부양가족 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가족부양의 현실적인 한계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 격려해 주어야 할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3) 총괄평가

프로그램의 효과성 외에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점이나 교육과정의 개선점, 제안점 등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총괄적인 평가를 개방형 질문으로 실시하였다.

건의된 사항으로는 노인정신건강에서의 노망이나 노인치매에 대하여 혹은 노화와 영양 및 식습관에 대하여 더 자세한 지식을 얻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강의 내용으로 제 영역이 고르게 언급됐지만 특별히 유대감있는 가족의 자질 중 장점 집중포격기법(SBT)은 갈등상황하에 있는 가족원의 장점 목록을 작성해 본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대답한 참가자(38%)들이 많았다.

교육과정의 개선점으로는 시간연장, 나눔과 지지 격려의 기회확대, 구체적인 더 많은 실예제시 등이 건의되었다. 이상을 정리해 본 결과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기 위해서 교육시간 연장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부양가족의 어려움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노인부양체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노부모부양가족이 겪는 문제점과 요구가 고려된 실험적 노부모 부양가족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모집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과정에서 파악되는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여 노부모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프로그램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위해 부양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자기통제력 수준 및 부모부양태도 변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했다. 프로그램 종료일에 실시했던 1차 사후검사 t검증 결과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프로그램 종료 4개월 후인 2차 사후검사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화에 필요한 신체생리적, 심리적, 가족사회적 지식정보 수준과 자기결단 및 통제력 수준이 교육후에 모두 향상되었고 전체적인 부양인식과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노부모와의 관계유지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미 연구들(홍숙자, 1992; 박충선, 199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노부모와의 동거 혹은 별거라는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주관적인 질적인 관계증진이 노부모와 자녀 쌍방간에 더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직계가족부양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아무리 노인을 이해하고 부양자 자신에게 긍정적인 부모섬김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가족이 감당할 능력 밖의 상황에서는 '先가족'의 요구에 부응치 못한다는 가족부양의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내용이나 진행과정 평가에 따르면 참가자의 대다수(75%)가 좀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노화와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실예나 자세한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기를 원했고 특히 관계의 이해와 가족유대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습득에 의욕과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참가자들은 교육실시시간이나 횟수를 다소 증가시키기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시시간을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로 하거나 혹은 모임의 횟수를 5회에서 6~7회로 연장 조정해 볼 수가 있겠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원래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실제 여성 부양자만이 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대상규모 등의 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한 비교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한점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본 프로그램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을 돕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영모(1990). 한국노인복지 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2) 김종갑(1985). 한국노인문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태현·최정혜(1991). 부양을 중심으로한 노부모-성인자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5 : 161-177.
- 4)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민무숙(1994). 노인동거가정의 성인여자녀의 부양 부담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발전연구소 노인동거가정의 현재와 미래 : 50-82.
- 6)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 115-153.
- 7) 성규탁(1990).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강화하는 문화적 전통-. 한국노년학 10 : 163-181.
- 8) 송현애(1994).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윤진·조석미(1982).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 구성의 연구. 한국노년학 2 : 1-12.
- 10)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옥선화·이형실·이춘희(1994). 노인부양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부양자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2) : 61-77.
- 12) 전길량(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 기대감.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홍숙자(1992). 한국 거주노인과 재미교포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Brody, E.M.(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 19-29.
- 15) Motenko, A.K.(1989). The frustrations, gratifications, and well-being of dementi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9(2) : 166-172.
- 16) Zarit, S.H., Todd, P.A. & Zarit, J.M.(1986).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6(3) : 260-266.